

‘우한발 죽음의 공포’ 세계 스포츠계 직격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 1 여자농구 최종예선 장소 세르비아로
- 2 여자축구 쇼예선 우한서 시드니 변경
- 3 복싱은 요르단 입만으로 최종 조정
- 4 아시아내륙상륙 선수권대회 불투명
- 5 ACL·중전환 K리그팀들 일정 변경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일명 ‘우한 폐렴’의 공포가 스포츠계까지 덮쳤다. 2020 도쿄올림픽 예선 및 각종 국제 대회 개최지가 줄줄이 변경되고 있다.

아시아육상연맹은 28일 “오는 2월 12~13일에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 대회를 최종 취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선수들과 팬의 건강을 위한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항저우 대회가 취소되면서 3월 중순 중국 난징에서 열리는 세계실내육상선수권 대회의 개최 여부도 불투명해졌다.

여자농구 최종예선도 원래 개최 예정이던 중국 광둥성 포산이 아닌 세르비아 베오그라드에서 열린다. 국제농구연맹(FIBA)은 27일 “선수단과 농구 팬의 안전을 위해 개최지 변경이 불가피하다”며 개최지 변경 배경을 밝혔다. 대회 일정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일명 우한 폐렴의 공포가 스포츠계까지 활췌었다. 2월 중국 항저우에서 열릴 예정이던 아시아실내육상선수권대회는 취소됐고, 진행지인 우한에서 개최할 예정이던 올림픽 여자축구와 복싱 아시아지역 최종예선은 각각 호주 시드니와 요르단 입만으로 개최지가 변경됐다.

오는 2월 6~9일로 이전과 같다.

베오그라드로 변경된 도쿄올림픽 여자농구 최종예선은 우리나라가 포함된 C조 경기다. 4개 팀이 한 조가 돼 풀리그를 펼치는 이번 최종예선에서 세계랭킹 19위인 한국은 중국(8위), 영국(18위), 스페인(3위)과 함께 C조에 속했다.

여자축구 아시아 최종 B조 예선도 중국이 아닌 호주 시드니에서 열린다. 올림픽 출전권에 도전할 수 있는 플레이오프행을 놓고 중국, 호주, 태국, 대만이 경쟁하는 이 대회는 당초 2월 3~9일 중국 우

한에서 열릴 예정이었다. 그러나 우한이 이번 사태의 진원지인 만큼 아시아축구연맹(AFC)은 대회 장소를 21일 1차 난징으로 바꿨고, 이후 26일 다시 호주 시드니로 바꿔 발표했다.

복싱도 개최지를 변경했다. 국제올림픽위원회(IOC) 복싱 태스크포스(TF)팀은 26일 2020 도쿄올림픽 아시아·오세아니아 지역 예선을 오는 3월 3~11일 요르단 수도 암만에서 개최한다고 전했다. 이 지역 예선은 당초 2월 3~14일 중국 우한에서 열릴 예정이었으나 중국올림픽

위원회와의 논의 끝에 일정을 최종 조정했다.

아시아축구연맹(AFC)은 챔피언스리그(ACL) 플레이오프도 무관중으로 치르겠다고 발표했다. 이는 28일 상하이 상강과 부리람 유니타드(태국)의 맞대결부터 적용됐다.

ACL에 출전하는 K리그 팀들도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당장 2월 11~12일에 수원 삼성이 광주우 에버그라데 원정을 떠나는 것으로 이후 전북 현대와 울산 현대의 상하이 원정이 예정돼 있다. 플레이오프를 치르지 않고 조별리그로 직행한 울산은 아예 AFC에 먼저 공문을 보냈다. 구단 관계자는 “일단 우리가 먼저 홈거리를 치르겠다”는 내용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중국에서 동계훈련을 진행하던 K리그 구단들도 조기귀국을 결정했다. 중국 쿤밍과 메이저우에서 전지훈련을 소화하고 있던 대구FC와 상주 상무가 일정을 앞당겨 국내로 돌아온다. 강원FC 역시 2차 훈련지로 예정돼 있던 중국 광저우행을 취소했다.

우한 폐렴의 공포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스포츠계도 직격탄을 맞은 분위기다. 정은상 기자 award@donga.com

안치홍에 건 롯데의 희망

▶1면에서 이어집니다



안치홍

KBO리그에서 보기 힘든 2+2년의 상호 옵션 계약. 선수들이 보장 계약을 선호하는 걸 감안하면 쉽지 않은 결단이었다. 안치홍은 “첫 2년 계약은 내게 도전이다. 가치를 다시 한 번 증명할 수 있는 계약”이라며 “내가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한다. 2년 뒤에 대한 자신감은 충분하다. 그만큼 준비를 철저히 했다”고 자평했다.

군 복귀 시즌인 2017년부터 2연속 시즌 20홈런 고지를 넘긴 안치홍은 지난해 5홈런에 그쳤다. 타율은 0.315로 여전히 준수했지만 득점권에서는 0.234로 고전했다. ‘클러치 히터’로서 자존심을 구겼다. 안치홍은 “과도한 벌크업에 초점을 맞춘 영향도 컸다. 월인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개선할 수 있다”고 다짐했다. 성 단장은 “클러치 능력이 떨어졌지만 볼넷, 2루타 등 생산성은 여전했다”며 “기준에 해왔던 모습만 그대로 보여줘도 영입은 대성공”이라고 분석했다.

● ‘사직구장의 열기를 다시 가져오겠다’

독특한 2+2년 계약은 첫 2년이 지난 뒤 상호 의지에 따라 연장 여부가 결정된다. 2년, 혹은 4년 뒤 롯데와 안치홍의 동행은 평가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성 단장은 “안치홍 영입 효과는 지금 평가받고 싶다”고 강조했다.

올 스토브리그에서 가장 뜨거운 팀은 단연 롯데다. 포수 FA들에게 목을 매는 대신 트레이드로 지성준을 데려왔고 화려한 경력의 외국인 선수를 데려왔다. 2차 드래프트에서도 1군 경력이 없는 외야수 최민재 영입에 그쳤다. 여기에 안치홍과 독특한 계약을 이끌어냈고 전준우까지 잔류시켰다. 성 단장이 강조하는 ‘프로세스’는 일종의 신드롬이 됐다.

2020시즌을 향한 팬들의 기대치도 높아졌다. 물론 시즌 성적은 투경을 열어봐야 알 수 있지만, 지난해 최하위 팀이라고는 믿을 수 없을 만큼 기대와 시선이 높아진 건 분명하다. 성 단장은 바로 이 지점에서 ‘안치홍 효과’를 강조했다.

롯데 팬들은 “올해 성적이 정말 기대된다”, “올해 해볼만 할 것 같다”고 말하고 있다. 최하위 팀에 연이어 이슈가 생선되고 있다. 안치홍의 영입 덕에 2020년 팬들의 시선을, 발걸음을 롯데로 이끌 수 있다는 분석이다.

‘구도부산’의 열기는 지난해 최하위라는 성적과 함께 차갑게 식었다. 하지만 안치홍은 “성적만 남다면 팬들은 응원을 해주실 것이다. KIA 소속으로 사직구장에 원정을 올 때마다 느꼈다”며 “그 열기를 올해 다시 가져오겠다”고 다짐했다. 롯데가 지불한 최대 56억 원의 금액에는 2020년을 향한 팬심의 지분이 적지 않다.



9회 연속 올림픽 본선에 진출한 대한민국 23세 이하 축구대표팀이 28일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귀국했다. 김학범 감독(앞줄 왼쪽에서 5번째)과 선수들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 김민성 기자 marineboy@donga.com

금의환향 김학범 감독 “도쿄올림픽팬 동메달 넘어서고 싶다”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

“모두가 기량 좋아 파격 전술 가능
최종엔트리는 조 편성 후에 결정”

성공하면 비단 옷을 걸치고 고향을 찾겠다고 했다. 김학범 감독이 이끄는 23세 이하(U-23) 축구대표팀이 그랬다. 2020 아시아축구연맹(AFC) U-23 챔피언십 정상에 오른 대표팀은 28일 오전 인천공항 화물터미널을 통해 귀국하면서 뜨거운 환영을 받았다. 그야말로 금의환향이었다.

한국축구는 이번 대회를 통해 두 마리 토끼를 잡았다. AFC U-23 챔피언십 첫 우승과 함께 2020 도쿄올림픽 본선 티켓도

거머쥐었다. 김 감독의 변화무쌍한 전술이 유난히 빛을 발한 대회였다. 김 감독은 “돌아보면 경기 고비였다. 다행히 선수들이 잘 따라줘 우승할 수 있었다. 선수들과 힘을 합쳐 거둔 성과여서 더 값진 것 같다”며 소감을 밝혔다.

대회 내내 화제였던 로테이션에 대해 그는 2가지 이유를 들었다. 하나는 무더운 날씨였고, 또 하나는 선수들의 고른 기량이었다. “우리 팀에는 특출한 선수는 없어도 열심히 하는 선수는 많다. 누가 나가도 지지 않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다. 그 덕분에 과감하게 바꿔 기용할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감독의 머릿속은 이미 도쿄올림픽 구상으로 가득 찼다. 하지만 그는 서두르지 않겠다고 했다. 18명만 선발하는 엔트리 기준에 대해 그는 말을 아꼈다. 김 감독은 “기준을 정해 놓으면 유연성이 떨어진다. 내가 필요한 선수를 발탁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를테면, 소속팀 경기에 나서지 못하더라도 내가 필요한 자원이면 데려간다”면서 “팀에 도움이 되는 선수, 팀에 필요한 선수를 뽑는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다”고 큰 그림만 그렸다. 3명을 뽑을 수 있는 와일드카드(24세 이상 선수)에 대해서도 “조 편성이 끝나야 윤곽이 나올 수 있다. 상대에 대한 분석을 통해 어떤 선수가

필요하다는 결정을 내려야 추릴 수 있다”고 했다. 조 편성은 4월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다.

김 감독은 올림픽 메달 획득이 목표라고 거듭 강조했다. 그는 “우승 후 태극 현지에서 갑작스럽게 질문이 날아들어서 그렇게 답했다”면서도 “변함없다. 어차피 목표는 잡아야 하고 기록은 깨려고 있는 것이다. (2012년 런던올림픽 동메달을) 꼭 넘어서고 싶다”고 강조했다.

함께 귀국한 주장 이상민과 대회 MVP 원두재(이상 울산 현대)도 한목소리를 냈다. 이상민은 “감독님이 그런 목표를 가지고 계신다면 선수들도 같은 목표로 나아가야 한다”고 동참했고, 원두재도 “감독님께서 말씀하셨으면 당연히 이를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힘주어 말했다.

폭스 베스트11에 5명 포함...K리그 흥행 예감

(폭스스포츠)

최고선수상 원두재 등 모두 K리그
최고 감독엔 6전 전승 김학범 선정

아시아축구연맹(AFC) 23세 이하(U-23) 챔피언십에서 우승을 차지한 한국 U-23 대표팀이 외신의 호평을 받았다.

폭스스포츠 아시아는 28일(한국시간) U-23 챔피언십 팀 오프 토너먼트를 선정,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친 베스트11과 함께 최고의 감독을 선정했다.

이번 대회 최우수선수상을 수상한 원두재(울산 현대·중앙수비수)를 비롯해 오세

훈(아산 무궁화·공격수), 정태욱(대구FC·미드필더), 이동경(울산 현대·미드필더), 송범근(전북 현대·골키퍼) 등 무려 5명이 베스트11에 이름을 올렸다.

이들 5명은 모두 K리그 소속이다. 이날 인천국제공항을 귀국한 U-23대표팀 선수들은 각자 소속팀 훈련에 합류해 2020 시즌 준비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원두재의 경우, 일본에서 활약하다 올 시즌을 앞두고 울산으로 이적한 만큼, K리그 팬들의 많은 관심이 모아질 것으로 보인다. 젊고 능력 있는 선수들이 이번 대회를 통해 부각이 되면서 이들의 활약은 새 시즌 K리그



원두재 이동경 정태욱 오세훈 송범근

흥행에도 큰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나머지 6자리는 압둘라흐만 가리브가, 압둘바시트 힌디가(이상 사우디아라비아), 야수르브 야크쉬보예프, 코지야카르 알리조노프(이상 우즈베키스탄), 키아누 바커스, 알렉스 게르스바쉬(이상 호주) 등이 선정됐다.

최고의 감독에는 김학범 감독이 선정됐

다. 폭스스포츠 아시아는 “김학범 감독은 팀을 6전 전승으로 이끌었다. 그는 선수들을 로테이션 하면서 소중한 경험을 쌓게 했다. 이런 공로를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고 평가하며 “김학범 감독이 미래의 국가대표팀 감독이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조심스럽게 곁들었다.